철의 노동자 평택지회

조합원 중심!
현장 고용안정!
현장 통제 OUT!

제14-08호 / 2026년 7월 23일/ 전화(031)680-6800-8 / 팩스:681-2888 / md.kwmu.kr/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 이시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가.....

어제 (7월 22일 수요일) 실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IDB 가공 라인에서 정비하시던 외주 업체 노동자께서 기계 협착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하늘의 별이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국금속 노동조합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소 이기적일 순 있으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와 관련된 조합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금번의 사고에서 자유로운가?

우선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기계의 인터로크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허술하게 이루어 졌다면 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5년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비뒷쪽에 보전 작업자가 들어가서 정비하던중 누군가 운전 스위치를 인가 하면서 보전 작업자 후두부쪽을 다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너무나도 유사한 사고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차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조합원은 잠정적 산재자(정신적 트라우마)로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만 나도 운전을 평생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물며 사망 사고입니다. 관련된 조합원의 정신적 상처는 저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잠정적 산재자로 보고 이에 맞게 대응할 것입니다.

항간에 무수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부디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는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측에 요구한다 즉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라!!!

단체협약 제 7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항, 9항에 의거하여

1. 사고발생 및 원인 보고
2. 작업 중지 관련
3. 동일 · 유사 기계 안전 점검
4. 작업자 보호 대책

의 안건으로 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개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경찰, 근로감독관등의 조사가 남아 있다는 핑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보류하자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요구 합니다. 신속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하라.